

Sermon Notes:

서론: 비유 (parable)

마 13 장에 12 번, 마태복음 전체에 17 번 나옴
하나님 나라에 집중됨

본론: 씨뿌리는 자의 비유

1. 비유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심 (13 절): 사 6:9-10 절 인용

2. 씨뿌리는 토양/밭

가. 길가: 단단한 땅

새 즉 마귀가 와서 먹어버림 (막 4:15, 눅 8:12)

cf: 존 번연(천로역정), 스크루테이프의 편지(C.S Lewis)

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함 (호 10:12)

나. 돌밭: 뿌리가 알아 성장하기 어려운 땅

늘 육신과 쉽게 타협하는 삶

기복신앙적인 거짓의 돌들을 버려야 함 (cf. 딤후 3:12)

다. 가시밭: 가시나무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땅

세상적인 유혹으로 인해 타협하는 삶

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삶

라. 좋은 땅: 옥토

듣고 인내하며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 (눅 8:15)

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풍성한 삶 (삭개오)

결론: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십시다!

암송구절: 마태복음 13 장 23 절

‘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 배, 혹 육십 배, 혹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’

메모:

1. 나는 어떤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가?

2.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가?

3.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인가?